

2022학년도 수능 분석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호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

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

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㉔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㉕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0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05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06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07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독립한다.
-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 ⑤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08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쓰기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헤겔 :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쓰기 :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는 말이 됩니다.

-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09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소지(所持)하여야
- ② ㉡ : 포착(捕捉)한다
- ③ ㉢ : 귀결(歸結)되어도
- ④ ㉣ : 간주(看做)하면
- ⑤ ㉤ : 결성(結成)되지

04	05	06	07	08	09
①	③	④	③	②	③

(가)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정립-반정립-종합’이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입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인과’ 지문처럼, 요즘 철학 지문은 어려운 개념을 던져놓고서는 그걸 직접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뒤에서 서술되는 내용들을 통해 학생 스스로 그 개념의 의미를 유추해야 합니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세 범주’는 당연히 ‘정립’, ‘반정립’, ‘종합’일 것이라 생각하며 붙여서 읽어야 합니다. 그럼 뒤의 ‘대립적인 두 범주’는 무엇일까요? ‘정립’과 ‘반정립’이겠죠. ‘반정립’은 ‘정립’에 반하거나, ‘정립’을 부정하는 것일 테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화로운 통일’은 무엇일까요? 이 둘이 수렴된 ‘종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휘력을 바탕으로, ‘수렴적 상향성’은 대립적인 두 범주(정립-반정립)가 수렴하여 더 높은 것(종합-조화로운 통일)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로 풀어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립은 ~고, 반정립은 ~고, 종합은 ~다’. 이렇게 서술해 주면 이해하기 편하겠지만, 요즘 지문들은 위의 박스와 같이 서술하여 단순 정의 파악에도 거시독해가 필요합니다. 첫 문단부터 머리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가보죠.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2022학년도 수능 국어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이런 문장은 주어진 그대로 납득해야 했습니다. 논증의 방식도 변증법이고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도 변증법이기에, 그 둘 모두 ‘정립-반정립-종합’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겠죠.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 이기에,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즉’으로 연결하여 재진술합니다. ‘이념’ 그 자체와 ‘이념’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방식 모두 변증법적이라네요. 앞 문장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마지막에서 ‘이기에’로 끝났으니, 이는 뒤의 내용의 근거가 됩니다.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이념과 현실)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이념과 현실 모두 변증법의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이 둘은 하나의 체계라고 할 수 있고, 이를 다루는 논증도 변증법적이어야 합니다. 이념과 현실이라는 변증법적 ‘대상’을 다루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이어야 한다는 얘기는 앞 문장의 얘기를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미학은 예술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예술을 변증법적 구조(정립-반정립-종합)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읽어봅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많은 내용이 압축된 부분입니다. 첫째로, 미학의 대상은 예술이고(이건 '미학'이라는 어휘를 알면 알 수 있긴 합니다), 둘째로 '예술', '종교', '철학'은 각각이 '절대정신'의 다른 형태입니다. 셋째로 '이념'은 '절대적 진리'이고, 넷째로 '절대정신'은 이러한 '이념(절대적 진리)'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지문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문제를 풀려면 이 네 정보를 모두 받아들이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렵다고 급하게 넘겼다가는 뒤의 내용 대부분이 머리에 남지 못합니다. 이는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인과' 지문과 'PCR' 지문에서 제가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상당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예술', '종교', '철학' 이 셋이 다루는 내용은 모두 '절대적 진리(=이념)'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인식하는 형식만 차이를 가지는 것이죠. '내용'과 '형식'을 대비하여 서술하는 것은 다른 기출 지문들에서도 자주 나왔던 것입니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예술·종교·철학)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는 당연히 예술·종교·철학이겠죠. 이 세 형태는 바로 앞 문장에서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응하는 형식이 '직관·표상·사유'라네요. 직관, 표상, 사유가 뭔지는 뒤에서 알아봅시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직관', '표상', '사유'는 각각이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대응하는 '형식'이면서 동시에 '지성'입니다. 이 중 '직관'만이 물질적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물질적=물리적'이 무엇인지는 2206 '인과' 지문에서 설명했습니다).

'사유'에 대해 설명하면서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배경지식의 측면이지만, 철학에서는 물질적 대상이나 경험과 관련되지 않을수록 '순수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유는 개념(비물리)을 사용해 대상을 파악하는 지성이므로 '순수하다'고 말한 것이죠.

'예술', '종교', '철학'이라는 절대정신의 세 형태는 각각이 위의 세 형식과 일대일로 대응되기에, 예술은 '직관하는 절대정신'으로, 종교는 '표상하는 절대정신', 철학은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네요. 예술, 종교, 철학을 구분하는 인식 형식의 차이로 '직관', '표상', '사유'가 제시된 것임을 생각하면 맥락을 통해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왜 직관은 외면성을 지니고 표상은 내면성을 가지는지, 왜 예술은 객관적이고 종교는 주관적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철학적 사고가 뛰어난 학생이라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관은 외부의 물질적 대상과 관련되니까 외면성을 갖고, 표상은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니까 내면성을 갖는 거겠군', '예술은 직관과 마찬가지로 외부에 실재하는 물리적 대상을 다루므로 객관적인 것이고, 종교는 내면성을 갖는 표상을 인식 형식으로 가지니까 주관적인 거겠군'. 이렇게요. 공부를 하는 여러분은 위와 같이 사고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세요. 그러나 만약 실전에서 이렇게 사고하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이 분류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립	반정립	종합
인식 형식	직관(외면)	표상(내면)	사유
절대정신의 형태	예술(객관)	종교(주관)	철학

이런 표의 형태로 머리에 정리할 수 있다면, 문제를 다 맞힐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식의 형식과 절대정신의 형태가 왜 변증법적인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까지 읽고도 '예술-종교-철학'이 변증법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학생들도 많았을 겁니다. (가)의 나머지 부분에서 한 번 더 이런 추론을 할 기회가 있으니, 같이 살펴 봅시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내용 자체는 절대적 진리로 동일하지만, 형식의 차이로 인해 그 내용을 인식하는 수준의 차이는 발생한다. '수준의 차이'라니까, '직관-표상-사유' 세 형식은 인식하는 내용에 있어 높은 수준도 있고 낮은 수준도 있을 겁니다. 다음에 나올 정보를 통해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겠죠.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절대적 진리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적 진리를 대상으로 하는 인식의 형식이나 절대정신의 형태 또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일수록 높은 수준의 것이겠죠. 이때 앞서 나온 내용대로 사유-표상-직관의 순서로 '논리적'이므로, 절대정신은 그 각각의 형식에 대응되는 철학-종교-예술의 순서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인 것이란 애깁니다. 어쨌든 최고는 철학이고, 예술은 과거에만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네요. 철학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절대정신이고, 예술은 초보 단계의 절대정신이라는 결론을 '그런갑다~'한 채 (나)를 읽어봅시다.

(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정립-반정립)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정립과 반정립이 '종합'된다면, 그 둘 중 하나만 일방적으로 이기거나, 각각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둘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으로 조화되어 더 상위의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종합이라네요.

이게 (가)에 나왔던 '조화로운 통일'이자 '수렴적 상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립과 반정립 중 하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둘의 속성이 모두 살아 남는다는 점에서 '조화로운 통일'이고, 이 둘이 조화되어 더 높은 것이 된다는 것이 '수렴적 상향성'인 것이죠. (가) 지문이 헤겔의 변증법 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압축적인 글이었다면, (나) 지문은 이제 그 개념을 바탕으로 비판적 해석을 시작합니다. 그 비판이 제대로 시작되기 전에, (가)와 (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바로 (나)의 첫 문단인 거예요. 만약 이 문단을 '아, (가)에 나왔던 '수렴적 상향성'이란 단어를 풀어서 설명한 거네'라고 생각했다면 아주 뛰어난 학생입니다.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종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수렴적 상향성'은 변증법의 탁월한 지점 중 하나지만, 헤겔이 미학에 있어서는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원지 한 번 봅시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앞 페이지의 표 기억하시죠? 변증법의 '정립-반정립-종합' 구조에 맞게 '직관-표상-사유', '예술-종교-철학'을 구성한 헤겔의 '전략'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 역시 (가)의 개념을 짧게 요약한 문장입니다. 이제 (나)의 글쓰이는 헤겔의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려 하겠죠.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왜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지 이해하셨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헤겔의 설명은 (나)의 초반에서 언급했던 '수렴적 상향성(특히 수렴성)'이라는 종합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입니다. 직관-표상-사유로 갈수록 직관이라는 '정립'의 외면성이 점점 사라지고, 마찬가지로 예술-종교-철학으로 갈수록 예술이라는 '정립'의 객관성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외면성과 객관성의 본질인 감각적 지각성이 사라지는 것은 '법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것이기에, 유기적 조화를 통해 수렴적 상향성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죠. 따라서, 헤겔이 설명하는 예술에서 철학까지의 과정은 진정한 '종합'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면성과 주관성의 일방적 승리에 불과한 것처럼도 보인다는 거죠.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앞 문단에서 드러난 오류 없이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철학의 주관성이 다시 객관화되는 과정이 있었어야 '일방적 승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재객관화가 없다면, 예술의 객관성과 감각적 지각성이 소멸되었을 뿐, 진정한 '종합'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헤겔은 예술이 과거에나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던 초보 단계의 절대정신이라고 폄하했는데, (나)의 글쓴이는 오히려 예술이 철학의 다음 단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표현의 뉘앙스만 잘 읽고, '(가)는 예술은 허접하다고 봤고 (나)는 예술에 뭔가 더 가치를 두었네~' 정도로만 생각했어도 문제의 많은 선지들이 쉽게 걸러집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고지만, 실전에서 너무 정보 하나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런 단순한 메시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빙빙 도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헤겔은 예술 작품이 '직관'의 형식을 가진다고 했지만, 실제의 많은 예술들은 '사유'의 형식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가) 마지막 문단의 논리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사유'라는 순수하고 논리적인 형식으로만 설명된다는 것은 곧 그만큼 예술이라는 절대정신이 높은 단계의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사실 앞에서 얘기한 뉘앙스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마지막 줄,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헤겔의 '예술-종교-철학' 구조가 변증법이라는 철학적 방법에 부합하지 않음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은근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마지막 문단이 <보기> 문제 출제의 근거가 됩니다.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된다'⇒'예술은 헤겔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단계의 절대정신일 수 있

다.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0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답 : ①

특정한 철학적 방법(변증법)이 나타나 있고, 그것에 기반한 체계(예술·종교·철학·직관·표상·사유)로 예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에서는 ‘초보 단계의 절대정신’으로 낮게 나타났던 예술의 위상이 (나)에서는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 그 위상이 높게 제시되었고요.

해설

- ② 특정한 철학적 방법(=변증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없습니다. (나)도 변증법이라는 방법 자체를 비판하진 않았죠.
- ③ 특정한 철학적 방법(=변증법)의 ‘한계’가 시대적 상황과 관련되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니다.
- ④ 예술 장르를 유형화하는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 ⑤ 특정한 철학적 방법(=변증법) 자체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니다.

05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정답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예술·종교·철학)는 각각이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입니다. 이때 ‘직관’, ‘표상’, ‘사유’는 인식 형식이면서 지성이죠. 그럼 도대체 뭘 인식하는 걸까요?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라는 내용을 통해, 그 대상이 ‘절대적 진리’이면서 ‘이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세 부분으로 쪼개서 봅시다. ‘(a)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 (b)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 (c)인식하는 대상이다.’ 이때, (a)≠(c)면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a)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	(b) 지성의 세 가지 형식	(c)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
예술·종교·철학	직관·표상·사유	절대적 진리=이념

사실은,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의 도구가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므로, 지성이 인식하는 대상이 절대정신이라는 설명은 딱 봐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③을 고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해설

- ① '동일성'과 '상이성'이라는 단어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 지 파악해야 합니다. 2021학년도 수능 '복학론' 지문에서 '평등권'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의 정답 선지와 비슷한 구조예요.
여기서 인식 내용은 '이념=절대적 진리'로 같으므로 '동일성'을 갖지만, 인식 형식은 '직관·표상·사유'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상이성'을 가집니다.
-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사·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라는 지문의 내용을 통해 맞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④ (가)의 1문단에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 ⑤ (가)의 마지막 문단에서 제시된 내용이며, 이를 바탕으로 예술·종교·철학의 단계적 등급을 매겼습니다.

06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 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정답 : ④

예술의 '개념'을 다루는 것은 '사유'가 맞습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도 사유가 맞죠. 그러나, 그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작품을 '기획'하는 것은 머릿속(내면)에서 무언가를 떠올리는 거니까, '직관'이 아닌 '표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관'은 주어진 외부의 물질적 대상을 인식하는 인식 형식이므로, 이미 존재하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행위 등을 설명하는 데 적합할 것입니다.

지문에서 '직관', '표상', '사유'가 무엇인지 개념적인 설명은 해주었지만, 정작 이해하기 쉬운 예시는 전혀 주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통해 학생 스스로 예시를 연결해야 했습니다. 이런 문항을 풀려면, 독해력은 기본이고 이해력과 추론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틀렸다면, 과거의 철학 지문 기출들을 모아서 꼭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책에 없는 지문으로는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유비 논증' 지문을 추천드립니다.

07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정립-반정립-종합과 ㉡예술-종교-철학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 ⑤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정답 : ③

(나)의 글쓴이는, ㉠에서는 앞의 두 범주가 조화롭게 통일되지만, ㉡에서는 예술에서 철학으로 갈수록 첫 번째 범주인 예술의 특성이 점차 지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줄,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불일치'이죠.

해설

- ① ㉠에서는 정립과 반정립이 대립하고, ㉡에서는 객관성을 지니는 예술과 주관성을 지니는 종교가 대립합니다.
- ② 앞의 두 범주가 최상의 마지막 범주로 향하는 '상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두 번째 범주와 마지막 범주 사이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 ④ ㉠이라는 변증법의 구조는 조화로운 통일을 통해 '수렴적 상향성'을 지니는 것과 달리, ㉡에서는 예술의 특성이 점차 지워지기에 '조화로운 통일'이라고 볼 수 없었죠.
- ⑤ 제가 지문 해설을 할 때 거시독해했던 것을 이 선지에서 직접적으로 정리해 주었네요. 선택률은 낮았으나, 거시독해의 필요성을 먼저 알려준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8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㉞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헤겔 :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쓴이 :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는 말이 됩니다.

-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보기> 해설

헤겔이 말한 예시는, 지적인 수준이 예술 작품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성적 통찰'은 '사유'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이는 예술이 직관하는 절대정신이며, 지성이 미발달된 시기에는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초보적인 것이라는 헤겔 스스로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보기>를 잘 읽고 풀면 되지만, 사실 (나) 마지막 문단이 정말 큰 힌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예술 작품

들이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기에, 예술은 헤겔이 평가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절대정신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죠. <보기>는 (나)의 마지막 문단을 구체적으로 구성한 텍스트예요.

정답 : ②

헤겔의 이론에서는, 예술은 '직관하는 절대정신'이고, 이때의 '직관'은 주어진 외부의 실재하는 물리적 대상만을 인식하는 '외면적' 형식입니다. 그런데, 예술이 사유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이것은 '내면성'을 갖게 되죠. 따라서, 헤겔의 이론에서는 단순히 외면성에만 대응하던 예술이, 헤겔 스스로 말한 실제 사례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②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해설

- ① 범주들을 중화한다는 것은 앞의 두 범주의 특성을 열거 지게 만든다는 것인데, 지문과 <보기>에서 언급된 현실의 예술에서는 그러한 중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③ 아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 ④ 객관성도 갖고, 주관성도 갖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외부의 질료와 작품을 보는 것은 '직관'으로 객관성을 갖고, '사유'를 매개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주관성도 갖기 때문이죠.
- ⑤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머나먼 과거뿐이었던 헤겔의 이론과 달리, (나)는 오히려 예술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므로 ⑤번 선지는 바로 걸러야 할 것 같습니다.

09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소지(所持)하여야
- ② ㉡ : 포착(捕捉)한다
- ③ ㉢ : 귀결(歸結)되어도
- ④ ㉣ : 간주(看做)하면
- ⑤ ㉤ : 결성(結成)되지

정답 : ㉢

해설

- ① '지니다'가 추상적인 맥락을 갖는 것과 달리 '소지하다'는 물리적인 것을 실제로 가질 때 쓰는 어휘입니다. 비문학 어휘 문제에 '소지하다'는 정말 많이 나왔어요.
- ⑤ '결성되다'는 조직이나 단체가 형성됨을 뜻하며, 지문의 개념적인 관계에서의 맥락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4~9] 변증법 지문

조경민의 Comment

(가) 지문은 개념을 설명하는 지문임에도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변증법', '범주', '절대정신' 등의 개념을 거시독해를 통해 끊임없이 붙여 읽으며 학생 스스로 파악해야 했습니다. 『만점의 생각』에서 가르치는 독해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되었을 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 지문은 다소 생소한 구성과 문체이지만, (가)를 비판적으로 독해한다는 점에서 (가)와 (나) 사이의 유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와 (나) 지문을 한 번에 읽으며, 이어지는 포인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선지의 난이도 역시 매우 높았습니다. 아마 실전에서 모든 선지를 엄밀히 판단하기는 힘들었을 듯합니다. 이런 지문을 공부할 때는, 100% 이상의 이해를 추구하며 지문의 내용을 치열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되, 문제 풀이에 있어서는 '실전에서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수험생들의 코멘트

문송(서울시립대 21학번, 2022수능 언매 95점)

저는 시험장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납득하고 지나가지 못했고, 일단 넘어가서 (나)의 첫 문단을 읽고 그제서야 수렴적 상향성이 무엇인지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보기> 문제의 경우, 2022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자유의지 지문 13번 보기 문제와 거의 같은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 다 한 입장의 주장에 (9월 모의고사 문제는 실험이긴 합니다.) 다른 입장이 반박을 하는 구조이고, 반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며, 답을 찾는 과정 또한 거의 같다고 느껴집니다. 답을 찾은 과정이 이 책에 들어있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 해설을 보기 전에는 '그냥 반박자가 합법한 말이 이미 지문에 나와있는데 그걸 그냥 고르면 되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무의식적으로 저렇게 사고한 것 같습니다.

김연준(2022학년도 수능 국어 백분위 100)

솔직히 (가) 지문은 이해하기 매우 어렵지만, 대신 (나) 지문은 특유의 2022 6평식 베카리아 문제를 논외로 한다면 이해하기 조금 쉽게 서술된 듯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 지문이 어려웠던 이유는 (가) 지문 특유의 현학적인 어투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가) 지문이 이번 수능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이해하려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앞의 내용을 다시 기억해내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 읽혔던 예전 지문들과 달리, 일부러 현학적인 어투와 복잡한 개념을 사용하여 그러한 이해를 방해하여 독자의 이해가 궁극적으로 거시독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향은 전년도 수능부터 이어져 왔던 경향이지만 이번 수능에서 제대로 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시독해를 통해 이해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문제 풀이에서 꽤나 애를 먹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지